

[아프리카중동 비즈니스 정보]

에티오피아, 親 비즈니스 환경 구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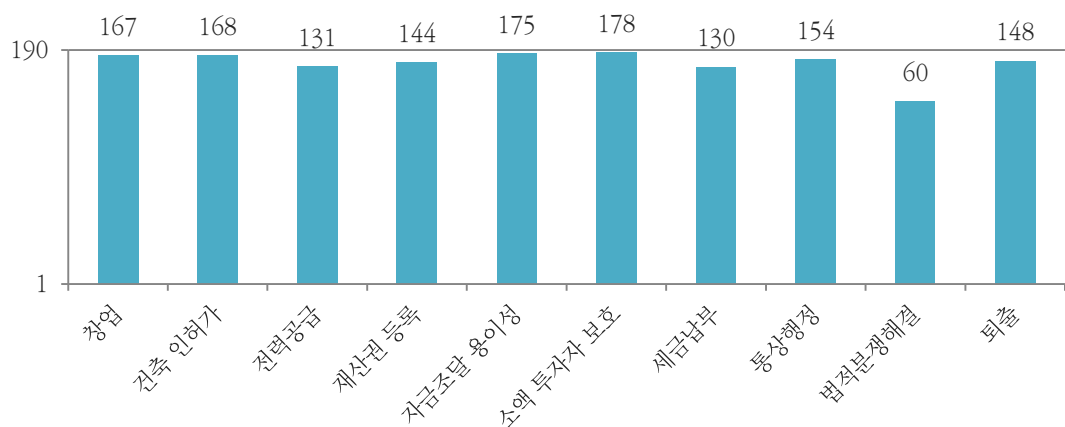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90개 국 중 15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계획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재정 접근 확대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그리고 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창업, 건축 인허가, 자금조달, 세금, 통상행정 등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지표 항목들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전반적 기업환경지표 하위권 기록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49.06점으로 190개 국가 중 159위를 차지했다. 기업환경평가 지표 항목으로는 창업(Starting a business), 건축관련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공급(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자금조달 용이성(Getting credit), 소액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통상행정(Trading across borders),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퇴출(Resolving Insolvency)이 포함되어 있다.

〈에티오피아 기업환경평가 지표별 순위〉



(출처: World Bank, 2018)

상기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에티오피아의 경우, “법적분쟁해결”이 60위로 1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들은 100위권 밖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노력

에티오피아 정부는 포괄적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창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및 재정 접근 지원 그리고 고용 불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총리 집권 후, 민간 부문의 참여를 높이고 국가독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에티오피아 투자청(EIC: Ethiopia Investment Commission)과의 회의에서 현재 착수 중인 “기업환경계획”(Doing Business Initiative)을 검토하여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재정 접근 문제 해결과 동산(movable assets)을 담보로 허용하는 대출 관행 수정을 강조했다.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대출과 일반적인 재정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향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세계은행의 10개 기업환경평가 지표 항목 개선에 주력하여 계획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출처

- Africanews, Ethiopia moves to boost ease of doing business, 2019.02.27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Training for Reform – Ethiopia, 2018.10.31